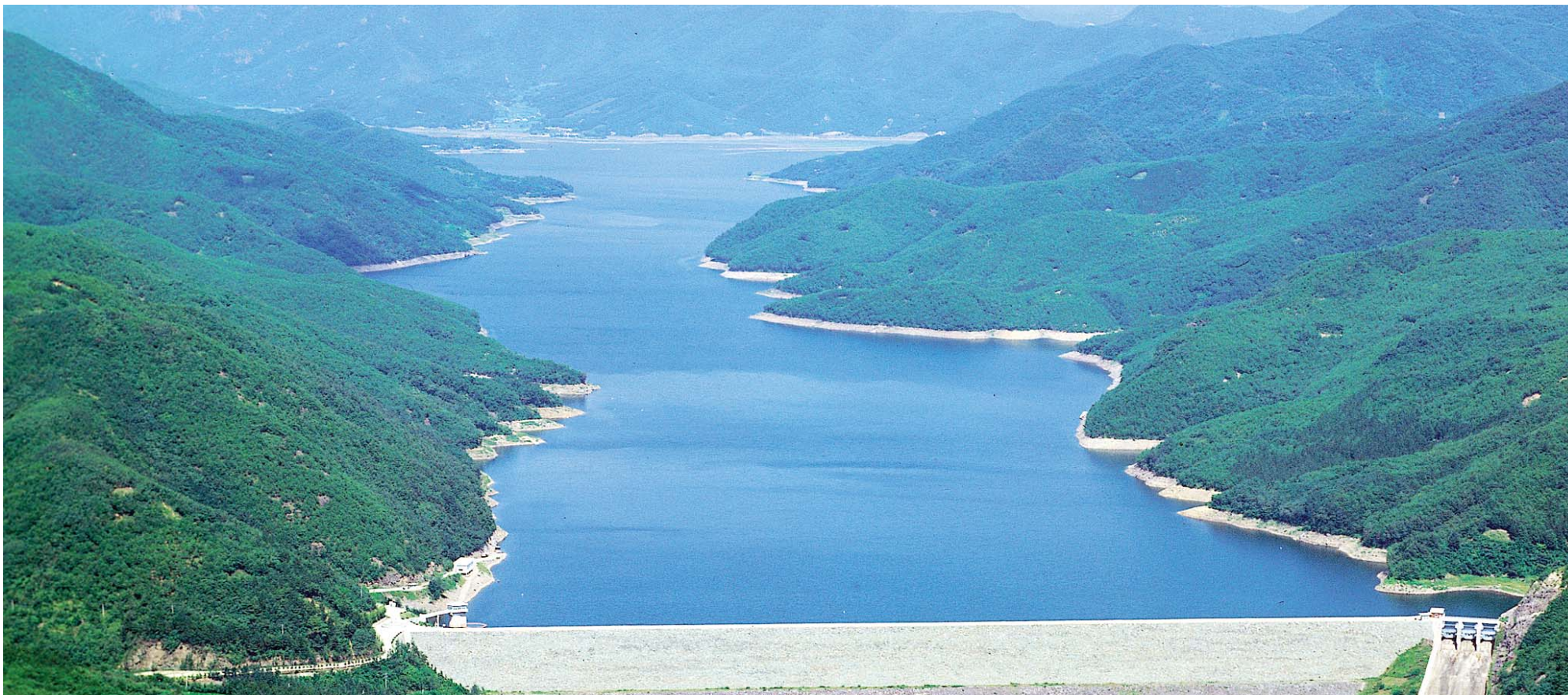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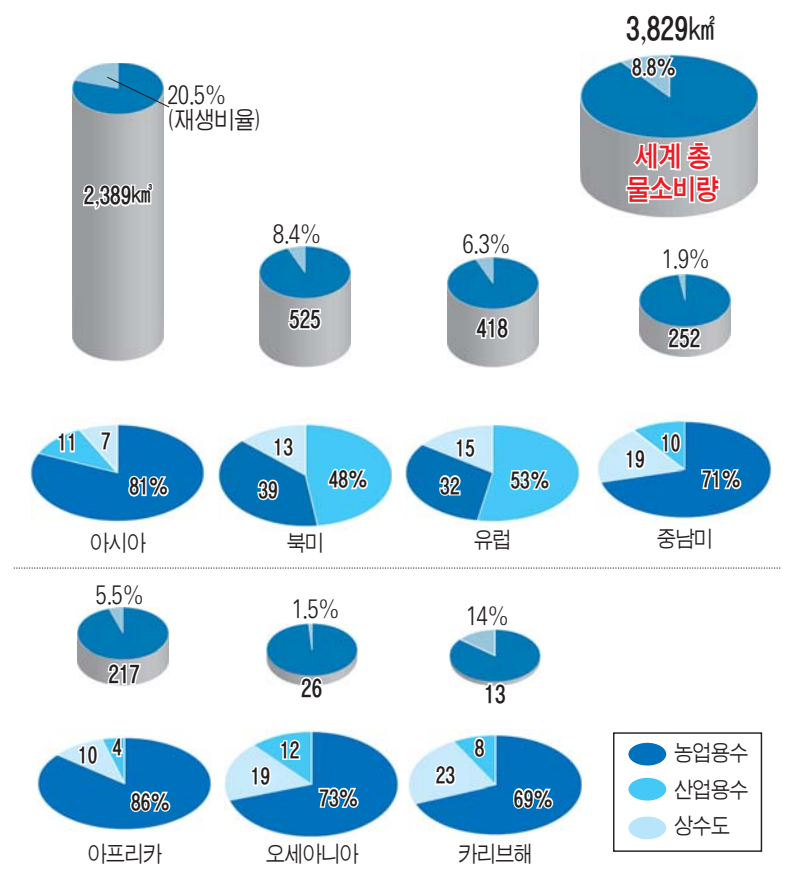


■ 프랑스 세계 물포럼을 다녀와서-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영산강유역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76년 10월 준공한 높이 36m, 길이 603m의 장성댐. 만수위 때의 호수 수면 면적은 68.9km², 총저수량은 8480만 t이다. 주변 139km에 걸친 광주시·나주시·장성군·함평군 일대에 관개 및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지구촌 물소비량 및 재생수 비율



180개국 2만5천명 물 부족 문제 깊은 고민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지난 1992년 11월, UN총회에서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물과 식량안보'라는 주제로 UN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물과 식량'은 인류가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자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세계 물의 날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주관하는 제6차 세계 물포럼이 열렸다. 세계물위원회는 21세기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물 문제를 사회 전반에 걸쳐 주요 정치 현안으로 인식 시킨다는 취지에서 1997년부터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세계 물포럼은 세계 150개국 이상의 정부대표와 각료, 국회의원, 지자체장, NGO대표 등이 참여하고 주제별로 100여개 이상의 세션이 민관산학 공동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국제회의라 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기구 대표와 각국 정상 및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180여 개국 2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형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등이 대표단으로 참가해서 다양한 수자원외교를 펼쳤다.

김형식 국무총리는 개최식 기조연설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물 관련 ODA 등 우리나라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2015년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 물포럼에 참석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필자도 물포럼 참여를 계기로 공사의 해외사업과 농업용수 관련 세계적인 논의의 장인 세계관개배수위원회(ICID) 총회 한국 개최를 위해 관련 고위인사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모하메드 압론 수자원청장과 부디 유노노 주거청장 일행을 만나 인도네시아 가리안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공사의 전문인력 지원방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의 활용, 사업관리, 양정부의 긴밀한 협력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가오 자니(Gao Zhany) 회장과 바트 슐츠(Bart Schultz) 전 회장 등을 만나 오는 201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제22차 ICID세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물포럼은 'Time for Solutions'을 주제로 모든 인류가 물을 향유할 권리에서부터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물 관련 주요 문제들에 대해 지금까지 써서온 국제 물 공동체의 노력과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또 시민참여 이벤트, 물정상회의, 각료회의, 물엑스포 전시 등도 열렸으며, 물 전문가, 물 이용자 그리고 NGO단체들이 고위급 정책결정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교류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자원이며,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강수의 연도별·계절별·지역별 편중, 개발과 보

물과 식량안보 관심사 급부상
수자원·평야 풍부한 광주·전남
2014년 ICID 총회 유치 나서야

존간 갈등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공통적인 이러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96년에 설립된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도 UN기구,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국제기구,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물문제 대응방안 모색과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세계 물포럼에 참가하는 동안 내내 생각나는 바가 있었다.

"광주·전남은 '물과 식량'의 보고이다. 영산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광활한 간척지와 기름진 들녘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2014년 ICID총회를 유치하여 '물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지구촌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김형식(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무총리와 박재순(맨 오른쪽)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프랑스 소피텔 호텔에서 물포럼 대표단을 격려하는 다과회를 갖고 있다.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배워요!

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류센터(www.hannew.org.nz)와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특징 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

기존 '해외과외형'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 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영어실력을 키웁니다.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전엔 별도 영어교육도 실시합니다.

특징 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

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별해 연수기간 내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습니다. 교사가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합니다.

특징 3 연수생 안전에 만전

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현지 학교 교직원과 한뉴문화교류센터 교직원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밀착 관리합니다.

특징 4 연수비용 최소화! 국내 최저가!

올해로 네번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광주일보가 지역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 현지 연수기관과 직접 교류로 연수의 품격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 했다. ●항공료 포함 498만원

| 연수기간 | 2012년 7월 26일 ~ 8월 23일(4주)
| 연수학교 |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6개교
| 연수대상 | 초등 3~6학년, 중학생 1~3학년

| 연수인원 | 선착순 50명
| 신청마감 | 2012년 3월 30일
| 문의 | 062-220-0555 · 018-693-6604

| 주 최 | 광주일보사 | 주 관 | 한뉴문화교류센터

